



'추추 트레이'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19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앤 캠든 이즈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을 때려낸 후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추신수, 1회 선두타자 홈런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시즌 20번째 '멀티히트'

'추추 트레이'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후반기 첫 홈런을 포함해 시즌 20번째 멀티히트를 끄러냈다.

추신수는 19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앤 캠든 이즈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1회초 홈런을 때려내는 등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추신수의 방망이는 첫 타석부터 날카롭게 돌아갔다.

1회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딜런 번디를 상대한 추신수는 2구째 시속 90.7km(약 146km)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통타,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려냈다. 시즌 13호 홈런.

추신수의 시즌 타점은 44개로 늘었다.

후반기 첫 홈런이자 지난달 26일 뉴욕 양키스전 이후 17경기, 23일 만에 홈런이다.

2회 2사 만루의 찬스에서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5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도 안타를 때려냈다.

추신수는 번디의 5구째 90.7km(약 146km)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노려쳐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추신수는 후속타자 엘비스 앤드루스가 별실리를 쳐 더 이상 진루하지 못했다.

추신수는 8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수 앞 땅볼로 돌아갔다.

이로써 시즌 20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4에서 0.248(307타수 76안타)로 올라갔다.

이날 선발 리인업에서 제외된 볼티모어의 김현수(29)는 8회초 대수비로

출전했다.

8회말 1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설 기회를 잡은 김현수는 상대 구원 토니 비넷의 초구 컷 패스트볼을 노려쳤지만, 2루수 정면으로 굴러가면서 별실리에 그쳤다.

1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0.226에서 0.225(120타수 27안타)로 떨어졌다.

추신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텍사스는 볼티모어에 1-12로 대패했다.

텍사스 선발 타이슨 로스는 3%이닝 7피안타(2홈런) 9실점(8자책점)으로 부진했다.

반면 볼티모어 선발 번디는 6이닝 4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해 시즌 9승째(8패)를 수확했다.

3연패의 수렁에 빠진 텍사스는 48패째(45승)를 달했다.

반면 2연승을 달린 볼티모어는 44승째(49패)를 따냈다.

/김민근기자

평창 조직위, 전국 15개 대학교와 시상식 참여 업무협약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파럴림픽 조직위원회는 19일 "시상식 요원 모집을 위해 동역여대, 국제대 등 15개 대학교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컨벤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와 각 대학교는 협약에 따라 모델학과 재학생의 시상식 요원 참여 및 교육·배치 등 협력에 관한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대회의 성공

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협약을 맺은 15개 대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시상식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조직위는 시상식 요원 모집을 통해 9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 중 자원봉사자와 함께 별대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공개경쟁으로 선발된 시상식 요원은 평창 미운틴 클러스터(설상) 7곳, 강릉 코스탈 클러스터

(빙상) 4곳, 메달 플라자 등 총 12곳에서 근무한다.

한편 조직위는 지난 5월 29일 한국 모델협회와 '아시아모델페스티벌' 참가 27개국 신인모델들을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한데 이어 대회 기간 문화올림픽 참여를 비롯한 자국 내 대회 홍보 활동, 시상식 도우미 지원과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민근기자

유소년 야구 선수 보호 대책 내년부터 시행

'투구수 제한·연속일 투구 금지'

유소년 야구 선수들의 보호 대책이 2018년부터 시행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2017년도 야구, 소프트볼, 생활체육 등 각 분야별로 전반기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및 통합 협회 제반 규정

제정, 유소년야구 제도 개선(안), 국제대회 출전 관련 KBSA-KBO 업무분장(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3월 구성된 '프로·아마 업무공조 TF팀'에서 논의하고 이후 두 차례의 저도자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미련한 유소년 선수 보호 및 부상 방지 대책 중 ▲초·중·고 투구수 제한 ▲연속일 투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강업 앞선이이엔씨 대표는 "헤일로 스포츠는 신경과학을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스포츠 경기력 향상은 물론 군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